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新聞代 一個月 八拾錢 六個月 四圓五十錢 一個年 八圓 (郵稅並)
廣告料 五號活字 一行 ...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金炯元
發行所 京城府水標町四三 朝鮮日報社

社說 颶風期의 社會運動 左傾이냐 右傾이냐

一

原內閣時代에 提出되엿든 過激思想取締法案의 鬼胎인 治安維持法의 實施는 目睫間에 이미 迫到한 事實이니 法의 內容如何나 同法施行의 可否에 對한 批評이나 理論은 벌서 無用의 時期이니 다만 同法實施의 結果 즉 適用되는 範圍의 如何에 依하야 그 影響이 如何한 程度로 波及될는지 이것은 미리 吟味할 價値가 업지아니한가 한다 그런데 當局者의 이에 對한 意見이 具體的 發表를 避할뿐아니라 發表하는데도 자못 曖昧하야 아즉 如何한 程度의 影響이 波及될는지 이것은 吾人의 臆測을 不許하는 바이다 그러나 同法自體가 實體法으로서 存在하는 以上 그 影響은 可히 預想할수 잇다 施行卽時旣成團體를 解散하거나 안키나 다만 時間의 差가 잇슬 뿐이다 그럼으로 直接影響을 바들 社會運動團體는 미리 이에 對한 覺悟가 업지아니치 못할 바이다

二

治安維持法의 實施를 압헤한 朝鮮社會運動은 實로 颶風을 압헤하고 不安을 늣기고 잇는 感이 업지아니하다 卽時全國的으로 左傾團體의 全部를 解散하기 不能하다하드라도 모든 左傾團體는 早晩間 이 颶風의 暴威에 震盪될 것은 否定치 못할 事實일 것이다 그럼으로 吾人은 朝鮮社會運動의 前途를 爲하야 한거름 나어가 民衆全體의 休戚을 爲하야 當面한 이 颶風期에 善處하지 안흐면 안될 것을 聲明코자 한다 그러면 如何한 覺悟로써 그에 善處하여야 될 것인가

三

元來朝鮮社會運動은 動的의 맛 備的으로 또 量的으로는 相當한 發達을 遂한 것이 事實이나 靜的의 맛 組織的으로 또 質的으로는 아즉 過渡期的 混沌의 領域을 解脫치 못하엿다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朝鮮社會運動은 氣分的으로 勃興되고 宣傳的으로 波及되엿스며 感情的으로는 高調되엿스나 아즉 組織的으로 盤根되지 못하고 批判的으로 純化되지 못하엿스며 理論的으로 熟達되지 못한 것은 儼然한 事實이 아닌가 이와가튼 時期에 잇서 颶風의 暴威가 襲來하는 것을 엇지 樂觀한다 하랴 그리고 朝鮮의 運動은 一面의 畸形的 形態를 가진 者이니 그것은 오늘날 우리 運動의 運轉이 求心的 結束으로부터 遠心的 運動에로 發展되는 것이 아니라 遠心的으로부터 遠心的 運動에로 一貫된 外에 評判하면 經濟的 利益을 目標로 한 經濟的 鬪爭의 必要에 應하야 그 努力이 集約된 結果 政治的 傾向을 띄이게 된 것이 아니라 政治的 鬪爭을 第一義的으로 하는 인테리겐차의 運動이 그 必然의 要求로서 努力을 集中한 그것이다

四

이와가튼 狀態에 잇서 外力의 干涉이 업다 하더라도 當然히 自中하야 冒險的으로 經濟的 鬪爭에 逆轉하야 多數한 民衆과 近接할 必要가 切實하게 잇슴은 일즉 吾人의 屢屢히 指摘力說하든 바이어니와 더욱이 暴威의 襲來에 當面한 現象에 鑑하야 그 必要가 一層 切實하게 된다 이에 現下朝鮮社會運動은 兩面의 强要에 依하야 經濟的 鬪爭으로 逆轉하게 되지아니치 못할 運命에 處한 것이 事實이다 그런데 經濟的 鬪爭에도 純經濟的 鬪爭 一方으로 나가는 그것과 政治的 鬪爭의 方便으로 하는 그것과의 區別이 잇다 그러나 前者는 吾人의 取할 바이 아니오 後者가 곳 吾人의 取할 바이니 嚴格한 意味에서 보면 經濟的 鬪爭으로 逆轉한다는 것은 右傾을 意味하게 될 것은 勿論이다

五

이와가튼 右傾期에 잇서 自體에 附隨되는 危險性을 充分히 顧慮치 안흐면 안될 바이다 즉 左傾을 僞裝한 右傾으로 逆轉하게 되는 것이 그 要點이니 오늘날 外지는 各其界線과 領域이 混沌되야 잇섯지마는 今後에는 各部門의 運動이 各其界線과 領域을 明確히 하고 各其當面의 問題를 問題로 하지 안흐면 能히 이 颶風期를 突破하고 組織的 批判的 理性的 運動으로 進出되기 어려울 것을 미리 覺悟하여야 될 바이 아닐가 要컨대 當局者가 治維法을 惡用하야 社會運動을 震撼하려는 時期에 잇서 그 機先을 制하야 먼저 自律的으로 相應한 覺悟와 準備가 잇지 안흐면 아니될 것인가 한다

獨逸의 軍備撤廢 今後는 大問題가 될듯

(巴里五日發) 부리안 外務長官은 獨逸의 保障條約提議에 對한 佛蘭西의 回答을 起草中인데 이것은 에리오 前總理의 回答案文을 不適當하다고 認함이다 부리안 氏의 意見은 他國과 商議前에 獨逸은 條約上 負擔할 一切의 義務 特히 軍備撤廢를 履行하고 且 國際聯盟에 加入하지 아니하면 안될 것을 言明한 것이오 一方으로 英國을 促하야 直히 佛國과 保障條約에 關한 協議를 開케 하야 其保障條約을 獨逸에도 及하게 하자는 것인바 軍備撤廢問題는 白耳義新內閣成立을 待하야 當面의 大問題가 되리라더라

國際武器 賣買取締會議 白國首相의 樂觀的 聲明

(壽府五日發) 『제네바』에 開催된 國際武器賣買取締會議의 開會式에서 白耳義首相 『우리알』도」氏는 聲明하야 曰 이 會議의 目的은 決코 正當한 武器賣買에 對하야 干涉하라고 함이 아니라 다만 危險하고도 不正한 取引을 避하자는 것에 在한 것이다 그리고 獨逸外지 四十三箇國이 出席한 이 會議는 반드시 充實한 成功을 보리라고 自信하는 바이다

토로氏 態度穩和 氏의 復舊는 別로 問題가 업다

(莫斯科五日發) 一般은 期待하기를 「트로츠키」氏가 今後에 國家計劃委員會、國防勞働會議에 關係하리라고 하더니 同氏는 中央執行委員의 若干領袖와 以來의 顯著한 意思相違가 이미 消滅되야 氏는 今後穩和的 態度를 取하리라고 信賴되며 氏의 復舊는 現政府內에 別로 異動을 起함이 無하리라더라

要職에 就할리 不遠間 莫市에

(莫斯科五日發) 勞農陸海軍委員長이던 「토로츠키」氏는 不遠間 療養地로부터 莫斯科에 歸할터인바 氏는 政府의 責任잇는 地位에 就한다는 說이 有하더라

合同諒解要求 田中男訪首相

(東京電) 田中政友會總裁는 六日午前十時半 首相官邸로 加藤首相을 訪問하고 今回의 政、革、中合同問題의 結果及顚末을 報告한 後 合同問題는 堅히 三派協調에 對하야는 何等從來와 異한 것이 업서 他意가 無한 旨를 陳述하야 諒解를 求하얏다 하며 同十一時半 高橋前政友會總裁를 訪問하얏더라

首相도 合同贊成

(東京電) 田中政友會總裁談＝政、革、中合同의 顚末을 加藤首相에게 報告하야 其諒解를 求하매 總理도 此를 깃버하얏스며 無論今後 兩派協調에 就하야는 從來와 變함이 無히 益益結束을 鞏固히 하야 新政策樹立及其實現에 努力할터이며 且今日의 會見에서 犬養遞相一身上에 就하야는 何等도 말한바가 업섯다 云云

遞相進退問題 內閣側은 注目

(東京電) 政、革、中正三派合同에 關하야 가장 注目되는 것은 犬養遞相의 進退로 犬養氏의 入閣은 革新俱樂部를 代表하야 首相이 入閣케 한 것인데 同俱樂部가 政友會에 合同하면 政黨의 存在를 失함으로 當然遞相을 辭職할 것이나 만일 遞相이 辭職치 안흐면 閣僚는 憲政會三、政友會四인 奇現象이 됨으로 進退如何는 內閣側은 疑惑의 眼으로 見한다더라

콥푸大使 着任人事

(東京電) 五日에 信任狀을 捧呈한 駐日蘇國大使 콥푸氏는 六日午後二時에 加藤首相을 訪하고 着任人事를 述하얏다더라

朝鮮事業債券 千五百萬圓發行

(東京電) 政府는 今回五分利國庫債券(第二十三回) 額面千五百萬圓을 發行하야 第三十三回郵便貯金으로 買出을 行하기로 決定하야 七日官報로 告示될터인데 此는 大正十四年度朝鮮事業費及鐵道事業費에 充當할 것으로 其發行에 關한 要綱은 左와 如하더라

一、發行日、大正十四年五月二十五日
二、發行價格、額面百圓에 九十圓
三、利廻、步合은 六分五厘

屠獸場改築申請

京城府營屠獸場改築移轉에 關하야는 本年의 府協議會에서 總工費五萬二百六十六圓四十六錢을 可決하고 工事設計書를 附하야 五月六日京畿道에 申請하얏는데 認可가 잇는대로 東大門外新築에 着手할터이더라

幼年講習期成 瑞山雲山面에서

忠南瑞山郡雲山面與賢洞外六洞有志諸氏는 附近普通學校의 距離가 超遠하야 幼年學生의 通學이 困難함을 憂慮하던바 本年四月頃에 普校初等科를 敎授하기 爲하야 權丙夏氏外十二人의 發起로 六洞講習所期成會를 組織하고 基本金組成及諸般準備에 努力한다는데 發起人의 氏名은 左와 如하다고

權丙夏、張基龍、朴鳳信、金樂賢、金東鎭、李培根、李起澤、金一周、金伯先、李起孝、牟東勳、鄭煥相、朴準榮(瑞山)

陰城에 人山人海 鐵道延長祝賀로

陰城邑一般市民은 忠北鐵道延長期成의 祝賀式을 擧行하다 함은 旣報한바어니와 去四月二十九日부터 五月四日外지 連續하야 六日間에 祝賀式을 盛大히 擧行하얏는데 附近各地에서 飮食營業者가 雲集하야 劇家를 臨時로 建設하엿슴으로 난데업는 新町을 成하얏스며 祝賀餘興으로 新派의 演劇과 妓生歌舞와 脚戲와 其他諸般遊樂이 每日興行되야 男女老少의 觀衆은 每日人山人海를 成하얏다는데 陰城에는 稀有한 盛況이엇더라(陰城)

南鮮庭球延期

全南羅州體育會主催와 東亞本社支局後援으로 南鮮庭球大會를 開催한다 함은 이미 報道한바어니와 本大會準備委員들은 諸種準備에 忙殺中이며 大會開催期日은 五月三十日三十一日로 決定하엿스며 同二十九日에는 抽籤하기로 하엿스며 申請接受期日은 同月二十七日外지로 變更하엿는바 各處의 庭球界는 踴躍하야 參加함을 바란다더라(羅州)

永同青年總會 年齡制限四十歲

旣報＝去月二十五日에 開催하랴던 永同青年會第六回定期總會는 日氣의 不順으로 因하야 不得已延期가 되엿던바 去三日午後四時에 本會館內에서 開催하고 張坡氏의 開會로 臨時議長宋寅鎬氏가 登壇하야 모든 議事를 進行한바 年齡制限問題로 場內의 空氣는 一層緊張하엿스나 畢竟多數의 可決로 十七歲以上四十歲以內로 制限이 되엿는데 被選된 任員은 左와 如하다더라

張坡 金龍洙 洪淳甲 金樂中 李景會 宋命憲 宋實 成樂寶 鄭煥樹 金台淡(永同)

革新殘留者 六日外지 十名決定

(東京電) 革新俱樂部의 政友會合同不參加者는 六日外지 決定된 것이 如左하더라

尾崎行雄、齋藤萬三郎、林田龜太郎、關直彦、淸瀨一郎、湯淺凡平、井上利八、星島二郎、富永孝太郎、田崎信藏

革新委員會 俱樂部로 參加決定

(東京電) 革新俱樂部는 六日午後一時부터 本部에 常務委員會를 開하고 前川、秋田、關、添田氏等이 出席하야 五日三縁亭에 開한 有志代議士會에서 相議한 事項에 對하야 意見交換이 잇섯고 更히 革新俱樂部로서 合同에 參加할 旨를 決議하고 三時十分에 散會하얏다

海軍防備隊 撤退完了

(東京電) 海軍省公表＝五月六日 漢口海軍臨時防備隊는 撤退를 終了하고 士官以上은 特務艦大泊으로 小樽外지 兵員은 特務艦膠州로 橫須賀外지 廻送하기로 되엿더라

衛生主任會議 十日間繼續

(東京電) 地方衛生主任官會議는 六日午前九時 淺沼衛生局長의 司會로 內務省에서 開會하고 湯淺次官의 訓示와 衛生局長의 指示가 잇슨 後 各地方主任官의 諮問事項에 就하야 答申이 잇고 午後四時散會하얏스며 且十日外지 繼續開會할터이더라

公州對淸州 野球、庭球試合 來十日에

忠南公州體育會主催로 公州對淸州의 野球庭球試合을 來十日午前九時부터 開催한다는데 野球場所는 當地大和町高等普通學校運動場으로 하고 庭球場所는 鳳凰山下道廳後場에서 擧行한다고(公州)

裡里公普後援總會

益山郡裡里公普校後援會의 第五回定期總會를 五月三日에 同校內에 開하고 同會長林香桓氏의 司會로 前會錄朗讀及會計、經濟報告가 有한 後 決議事項은 如左하다더라

一、會計員補缺은 同校職員工藤淸大氏로 選定함
一、益山面事務所는 同後援會學校增築費徵收에 莫大한 勞力이 有함으로 紀念品을 贈呈키로 하고 紀念品은 五拾圓限度로 하고 作品은 幹部에 一任키로 함

湖銀新築落成

光州에 本店을 둔 湖南銀行은 大正九年八月十六日에 創立한 以來로 其成績은 逐年擴大됨에 따라 行舍가 狹窄함으로 昨年五月에 起工하야 本館七十九坪과 附屬建物二十六坪의 獨逸式煉瓦製二層建物을 九萬五千圓의 工費로 全南에 第一가는 建物을 新築하고 去三日에 落成式을 擧行한바 銀行의 式辭와 全朝鮮各地의 金融業者代表의 祝電祝辭가 잇슨 後 一百五十餘名의 式場에 滿員된 一千五百餘名의 來賓들은 滿足 餘興으로 同午後六時에 散會하엿다고(光州)

順天司法代書人

全南順天法院支廳에서는 去四月二十九日에 司法代書人合格者를 發表하얏는데 受驗者二十七人中에 合格者는 十二人이라더라(順天)

어린이손에는 旗를 强奪 英陽警察의 橫暴

去五月一日에 慶北英陽邑에서는 當地少年團主催로 어린이 百餘名이 青年會館에 集合하야 紀念式을 擧行한 後에 宣傳行列을 始作한바 行列歌(新聞紙上發表된 것)는 警察의 禁止를 當하엿슴으로 어린이라고 朱書한 旗만 들고 갓버니 宣傳紙 少年協會에서 배부한 것을 配付하면서 行列하다가 突然히 警官이 出動하야 旗를 剝奪하엿슴으로 매우 興奮된 어린이들은 意味

啄木鳥

投稿歡迎 十四字五十行以內 住所氏名明記

順川記者諸君에게

◇諸君은 그 職務上 적어도 우리 順川社會의 大小事를 公明하고 新聞紙上에 報道할만한 事가 有하면 그 善惡開此를 詳細且敏速하게 報道함이 可한가 한다 그래서 公正한 輿論에 付함으로써 諸君의 使命을 다하엿다 할것이다 ◇그러나 每日入手되는 各新聞을 아모리 細密하게 注視하여도 順川記事로 볼만한 것은 若存若無하야 零星하기 實로 짝이 업스며 最近에 잇서서는 官吏等의 橫暴가 無雙하야 住民의 不安이 極度에 達하엿슴에 不拘하고 諸君은 何故로 默默不動하는가? 其中實例의 一二를 擧하면 ◇이제 民怨이 漲天한 警察署의 行政을 보자! 四方에서 警鐘이 울리건만 남이야 生活이 慘酷한 同胞가 不聞不見의 態度를 取하면서 所謂巡査들의 宅隣近에 屠殺場이 有함은 不潔且喧譁하야 不適하다는 理由로 郡當局에 迫하야 五年前建築物인 屠殺場을 一朝에 移轉케 하엿다 ◇거긔 所入되는 經費는 또한 面民의 財產이다 아—얼마나 可痛可憎한 事實일가 ◇前述한 事實이 新聞記事材料로서 適當치 안타 하면 外漢인 余로서는 全혀 判斷치 못하겟다 然이나 萬若記事材料로서 適當하다 하면 此를 通信치 안는 理由는 何에 在한가 ◇그外에 警察署長은 自己의 私宅이 必要하다 하야 順川의 甲富로 指目하는 李某를 說服하야 一千餘圓의 金額을 拠出하야 順川面에서 經營하든 屠殺場附近에 此의 建築을 ... 이 諸君의 意見은 果然如何(苦悲生)

金海市民運動 盛況에 盛況

旣報＝金海青年會、女子青年會의 主催와 時代、東亞、朝鮮各支局後援下에 金海市民大運動會를 去三日午前十一時부터 金海私立合成學校運動場에서 開催하엿는데 마츰 日氣가 淸朗한 空中을 울리는 花砲소리로 鐵血의 選手들이 百餘名이 意氣揚揚히 入場式을 마친 後 同會長許燮氏의 宣言으로 競技가 始作되엿는데 旣定한 六十餘種의 競技를 順序대로 進行하는 中 人山人海를 成한 五六千名觀客의 拍手喝采하는 소리와 選手들의 應援聲은 江山이 振動하엿스며 五里競走 『마라손』七千米突 自轉車競走 各優勝者氏名은 左와 如하다더라

◇마라손(五里)
一等 徐且開(一時二十一分間)
二等 金永吳(一時二十五分間)
三等 金孝淳(一時三十九分間)
四等 朴秀龍(一時四十五分間)
五等 金寶龍(一時四十九分間)
◇自轉車(七千米突)
一等 具鳳祚 二等 宋光珠 三等 坂井(金海)

榮州青年主催의 春期運動盛況

榮州青年會의 主催인 春期大運動會를 去二日午前十一時부터 榮州邑埋立地에서 開催한바 參加團體가 十餘團體이엿스며 當日은 不幸히 雨天임도 不顧하고 四方에서 雲集하는 觀覽者가 數千名에 達하야 拍手喝采의 聲은 場外場內에 振動하야 一大盛況을 일우엇다더라(榮州)

河東勞働總會 三個事項決議

慶南河東勞働會臨時總會를 去三十日午後三時에 鳳鳳射亭에서 開催하고 臨時議長金洪完氏司會下에 會員을 點名하니 出席會員이 三十二人이더라 順序에 依하야 勞働者의 現在와 將來라는 金洪完氏의 講話가 有한 後 左記事項을 滿場一致로 決議하고 同七時半에 閉會하엿다더라

一、執行委員長은 金敬淑氏로 選任
一、勞働者의 休日은 每月陰十五日로 定함
一、會員募集에 注力할일(河東)

尙州에 少年庭球大會 詳細는 追後發表

本報尙州支局主催로 尙州、醴泉、聞慶、善山、榮州六郡에 限하야 本月內로 店村을 中央으로 하고 大大的으로 少年庭球大會를 開催할터인데 時日及其他는 追後發表할터이더라(尙州)

三浪青年總會

慶南三浪津青年會의 第一回定期總會를 去四日下午一時本會新築會館에서 開催하고 會長朴圭燮氏의 司會로 會務를 處理하고 特別事項에 들어가서 本會館新築落成式과 當地公立普通學校運動會를 來十日(日曜日)에 開催하기로 決定한 後 閉會하엿는데 一般部員은 諸般準備에 奔忙中이라더라 ... 各히 散會하엿다더라(密陽)

河東司法代書人

慶南河東의 司法代書人은 左記十名으로 決定되엿다더라

趙潤鎬、吳在鉉、崔鎭鉉、相消根、黃泰性、姜祥秀、趙演鎬、朱祥秀、三瓶守正、淸水孫市(河東)

二北面民懇親會

慶南金海郡二北面에서는 去四月三十日(陰四月八日)의 佳節을 利用하야 官民披露宴及懇親會를 金鷹浩外數氏의 發起로 二北面事務所前山峰頭에서 擧行하얏는데 參席員은 約一百三十餘名에 達하야 大盛況을 일우엇다더라(金海)

尙州青年委員會

慶北尙州青年會에서는 本月四日午後四時에 該會館內에서 委員會를 開催하고 左記事項을 討議決定하얏다더라

◇決議事項
一、第七回定期總會時에 普明、普光合同經濟契約은 保留하고 其善後方策은 新任委員會에게로 一任케 하얏는데 今番委員會에서는 此合同契約을 無條件附로 承認하고 來의 位置와 經費等에 關하야는 寺刹側과 圓滿한 協定을 期하기에 努力할일
一、會館을 修繕하야 圖書縱覽所를 設置하고 每月一回式讀書會를 開催하기로 할일
一、普明、普光合同에 對하야 圓滿히 解決하기 爲하야 五月七日에 臨時總會를 開催하기로 함(尙州)

農會解散 會費不納으로 信川面長會議에서

黃海道信川郡에서는 去四日에 各面面長會를 開催하고 本來設置하엿던 農會는 何故인지 會費不收入으로 因하야 解散하기로 可決되고 其他事項을 決議한 後 閉會하엿다더라(信川)

漁業會社設立에 平安南北協同으로 資本家를 物色

平安南北道를 境界로 하고 흐르는 淸川江附近一帶의 櫻鰕漁業에 對하야 從來南北道의 紛爭이 되엿는데 甚田平北知事의 來壤과 渡邊內務部長의 新義州出張은 此에 對하야 如何等方針을 取하는지 보엿다고 하는 수 잇겟는데 近日兩道의 協定이 成立되야 個人에 對한 漁業權利는 全然廢止하고 兩道間의 民間有志로 하여금 一大漁業會社를 設立케 하야 此에 漁業權을 與할 事로 確定하얏다 하며 如何間權利問題가 生할는지도 아지 못하겟슴으로 當局者는 此會社設立에 對하야 米田知事를 비롯하야 渡邊內務部長이 中心으로 되야 平南의 有力者 朴經錫氏等의 有力者를 勸誘하야 豫定대로 實現키에 腐心하는 中인데 未久에 具體化될 것이라고 思한다더라(平壤)

白川陸上競技 觀衆이 無慮萬名 大盛況을 呈한

白川青年會主催第五回陸上競技大會는 去月三十日午前九時부터 當地南山運動場에서 開催하얏는데 비롯 當日은 優勝旗返還式이 잇섯고 이어서 會長宋斗鎬氏의 開會辭가 잇슨 後 八十六種의 競技種目을 進行中 無慮萬名이 나되는 觀衆의 喝采聲은 天地를 震動하고 午後五時頃에 無事閉會하얏는데 優勝의 月桂冠은 左記選手의 手에 歸하얏다더라

三千米『리레』決勝 白川公普校軍
마라손(七哩) 一着者 金順明(白川)

寧邊個人庭球 優勝은 鐵俱軍

五月三日午前十時에 每日申報社寧邊支局主催로 全寧邊個人庭球大會를 當地鐵道運動俱樂部코트에서 開催하엿는바 十四個團體가 參加하고 觀覽客은 無慮數百名에 達하야 자못 盛況을 呈하엿는데 最後勝利는 左記三代表軍에게 歸하엿더라

一等 劉道順 劉在泳 鐵俱軍
二等 金永煥 金學善 寧邊軍
三等 寧普軍(寧邊)

牛官立救濟會 常務委員이 面長

泰川邑耶蘇敎會堂에서 去四日午後九時에 泰川엡웟青年會를 비롯한 各團體代表二十餘名의 發起로 救濟會發起人會를 開催하고 議長朴應鶴氏의 司會로 開會하고 諸般事項을 決議하고 任員을 左記와 如히 選定하엿다더라

會長 朴應鶴 副會長 金元鳳 財務 金之錬、朴洛承 書記 金允柱、張士鉉 常務委員 各面面長八人外十三人(泰川)

萬城蹴球大會 少年團青年團의 優勝이 모다 安州

旣報한 安州郡萬城青年俱樂部主催와 萬城市民과 東亞、朝鮮兩日報萬城支局後援의 萬城蹴球大會는 豫定대로 去一日午前九時半부터 萬城青年俱樂部運動場에서 各團體代表의 抽籤과 其他의 準備가 잇슨 後 十一時頃開會되여 少年團三個團體와 青年團四個團體의 萬城初有의 開場式이 잇슨 後 競技를 始한 結果 最後優勝은 少年團의 安州猛虎軍과 青年團의 安州隆水俱樂部에 歸하얏다더라(安州)

海州司法代書人

黃海道海州地方法院에서는 去四月十九日에 管內司法代書人試驗을 行한바 志願者數는 從來代書人을 包含하야 五十七人이엇스나 合格者數는 新規管內에 十七人 其外五人을 合하야 二十二人이라는바 그 氏名은 아래와 갓더라

海州面 崔鳴國 崔暎根 曹秉奎 安乘模 吳世煥 吳壯植 李東彬 崔永燁 車白淳 崔丙燮 姜蒸善 張昌奎 朴容夏 魯寬亨 金台式 吉崎友吉 板垣市五郎 其他 田炳文 崔濟善 吳寬洙 金益? 崔鳳緖(海州)

延安金組總會

延白郡延安金融組合에서는 去月二十九日午後一時에 當地武道場에서 定期總會를 開催하고 左記事項을 討議하얏다더라

一、大正十三年度事業報告承認의 件
一、監事改選의 件
一、役員手當支給의 件(延安)

海州幼年校運動

海州南本町幼年主日學校에서는 五月九日午後一時부터 市內東萊町懿昌普通學校運動場에서 春期大運動會를 開催한다는바 當日은 來賓의 競技도 잇슬터이며 其外에 어린이들의 자미스러운 運動이 만히 잇스리라고(海州)

龜城司法代書人 龜城

龜城司法代書人試驗을 施行한 結果合格者氏名은 左記三人이라더라

金龍源 金徽熙 全永贊 李仲則(龜城)

◎延安公普生遠足 延安公立普通學校의 四、五、六學年生徒一同은 去一日에 白石浦로 二、三學年生徒一同은 去二日에 羅津浦로 各히 遠足을 하얏다가 無事歸校하엿다고(延安)

어린이外지 痛憤! 洪原警察의 紀念禁止로

咸南利原郡遮湖少年會에서는 『어린이날』을 紀念하기 爲하야 同日午後一時에 數百名어린이가 會集하야 壯嚴한 紀念式이 잇슨 後에 곳 市內行列을 하야 朝鮮少年運動協會에서 來한 宣傳紙를 配付하랴다가 警察의 命令으로 中止되고 깃븜에 넘처뛰든 어린이들은 興奮痛感하는 氣色으로 散會하엿다더라(利原)

養蠶女敎師를 各面에 配置

高原郡廳에서는 養蠶을 獎勵하기 爲하야 女巡回敎師十二人을 募集하야 一週間을 講習식힌 後 左記區域에 配置하엿다더라

下鉢面 朴尉女 郡內面 朱賢淑 朴權福 上山面 金女 孟熙女 山谷面 金鳳珠 李延珠 水洞面 朱順浩 呂嬅 金曾女 雲谷面 金辛烈 金呂嬅(高原)

一年間洪原의 담배갑 八萬圓 客月에는 六千餘圓

咸南洪原에 잇는 咸興煙草元賣捌所洪原第三營業所에서 昨年四月부터 今年三月末日外지 販賣된 담배갑은 八萬二千八百九十圓五錢이오 去四月中의 販賣額은 六千百十五圓十七錢이라더라(洪原)

元山釀造酒 特定運賃認可

元山의 釀造酒는 從來鐵道便으로 他地方에 賣上하는 境遇에 特定運賃의 設定이 無한 關係上 京城、平壤、大邱其他主要地合計十個所의 特定運賃設定에 關하야 從來로부터 運送을 하는 酒類에 對比하야 諸般費用外負擔額이 多함으로 競爭上非常한 不利益이 有하야 過般來當地酒造業者等은 右特定運賃의 請願을 한 結果 鐵道局에서도 早速히 此를 認可하게 되야 來二十五日부터 元山發各地의 酒類等輸送에도 特定運賃을 取扱하게 되얏다는데 特定運賃은 二百哩以上의 運送에 對하야 一噸二分、三百一哩以上에 對하야 二噸減少라더라(元山)

郵稅引上으로 約束郵便不能 元山에서는 使丁使用

元山府에서는 從來各種의 納稅告知書其他를 約束郵便으로 送達하든바 昨年十二月郵便規則改正으로 郵稅는 一通에 對하야 約一錢五厘를 要하야 從來보다 約三倍나 됨으로 總計十萬通의 告知書를 郵送하자면 多大한 郵稅를 要하는 故로 本年度부터 此郵送方法을 改하야 全部使丁으로 配達을 식힐터이나 此使丁은 告知書를 配達할뿐이오 稅金을 受納하거나 하는 事는 絶對업다더라(元山)

北青新昌港은 指定港으로 認可

北青郡新昌港은 北青邑에서 四十里되는 곳으로 陸上交通이 便宜함으로 荷物의 輸出入이 元山以北淸津以南에 第一位를 占하든바 近日에 指定港으로 認可되야 大阪神戶間直通汽船이 每月二次式航行함으로 一般商業界에 크게 便利가 되리라더라(北青)

利原婦人의 生活改善實行

咸南利原邑에 잇는 生活改善實行會에서는 婦人部가 創設되엿는바 最近에 婦人部第五回總會를 열고 여러가지 事項을 討議하고 任員을 改選한 後에 閉會하엿다더라

◇決議事項
一、會員은 一個月二次式大掃除를 할일
二、來二十五日에 特別淸潔을 할일
三、常時衛生에도 注意할일
四、現在의 衣服改良에 關한 件
五、本會創立紀念及園遊會의 件 來九日에 開催
◇任員 幹事 曹淳姬 書記 金元舜(利原)

洪原登記增設 原因은 財界恐慌

咸南洪原登記所에서는 昨年보다 登記事件이 激增되얏다는데 其原因은 財政恐慌인듯하다 하며 昨年과의 比較는 左와 如하다더라

自一月一日至四月末日 二千四十三件 登錄稅六千六百六十二圓七十七錢 今年自一月一日至四月末日 三千一百九十四件 登錄稅八千七百七十九圓七十錢 件數增一千一百五十一件 登錄稅增二千一百十七圓(洪原)

延安市民運動 來十日開催

延安에서는 東亞、朝鮮兩支局의 後援으로 來十日에 市民大運動會를 開催한다는데 場所는 北門外運動場이라 하며 會費는 五十錢이라더라(延安)

洪原司法代書人

咸南洪原郡管內의 司法代書人의 試驗을 施行한 結果 左記四氏가 選拔되엿다더라

張植欽 劉泰吉 朴在明 金鴻璣(洪原)

前津驛業績 咸鏡線

部前津驛은 客年十月十一日開通以來逐日成績이 良好한데 去三月末外지 取扱한 業績은 左와 如하더라

乘車人員 二等	九八人
三等	三三、四四七人
降車人員 二等	六四人
三等	三一、〇六九人
手小荷物 發送	九六一斤
到着	八五三斤
小荷物 發送	二二、八〇八斤
貨物 到着	二〇、五五七斤
發送	一八、〇八五噸
到着	一、二〇二噸
乘車賃金	一八〇、〇八五圓〇七
手小荷物賃金	四九七圓八一
貨物賃金	一〇、九三二圓六六

(洪原)

利盛商會總會 咸南

利原郡東面群仙港에 잇는 利盛商會에서는 去五月三日에 第七回定期總會를 利原臨時事務所內에서 會長姜永璣氏의 司會로 開催하고 左記事項을 決議한 後 任員改選을 하얏다더라

◇決議事項
一、前臨時總會及評議員會會錄朗讀
一、(訴訟進行中)經過狀況報告
二、昨年의 收支概算報告
三、訴訟費用決算報告
四、任員豫選承認及評議員改選의 件
五、定款修訂通過承認의 件
六、旣賣株券取消新株券配付의 件
七、遺株券處分의 件
◇改選任員
社長 姜永璣 專務 金容鉉 理事 申台曦 監事 姜龍秀 八璘基述 評議員 姜寶秀 延奎鎬 金南奎 金長彥 鄭奎燮(利原)

北靑郵便多少迅速

北靑郡陽化郵便所에서는 本月一日부터 北靑通過小包를 鐵道로서 中繼取扱한다는데 北靑外郡小包는 迅速配達되리라더라(北靑)

韓校長의 熱誠 北靑郡

俗厚面梧梅里俗新學校는 財政困難으로 客年中에 廢校의 運命에 至하엿던바 韓昌禹氏가 校長에 就任된 後로 赤誠으로 活動한 結果 該里有志人士의 義捐이 遝至할뿐만 아니라 該里舊時代文學을 養成하던 樂山齋財產을 父老에게 交涉하야 校舍新築에 寄付케 되엿슴으로 地方人士는 該地人士의 熱心을 感歎하는 同時에 韓校長의 熱誠을 稱頌한다더라(北靑)

東西音樂盛況

開城中央會館青年部主催로 東西音樂演奏會를 開催하기로 한다 함은 本報에 旣報한바어니와 去四日五月 東亞、本社開城支局後援下에 同會館內에서 下午八時半부터 河米成氏의 司會下에 松高樂隊의 壯快한 合奏를 비롯하야 李東伯의 華麗한 獨唱 沈淸歌等 여러가지의 獨特한 技能으로 滿場의 觀客은 拍手가 不絶하는 中에 大盛況을 일우엇더라(開城)

開城女公普後援會

開城女子公立普通學校後援會에서는 去二十五日下午二時에 同校二層樓上에서 定期總會를 開하고 昨年度收支決算報告와 本年度豫算案을 通過한 後 規則改正及同會員의 株는 一株에 二十錢式으로 每月一株式을 擔任하기로 可決하엿고 任員은 如左하더라

理事 林鳳楨、李升炯、朴泰鉉、井澤宇三郎、田敬駿 評議員 李文淳、張愚、金永澤、崔厚鏞、李熙敬、金永河、金泰永等諸氏

◎開城女普敎員送迎 지난三日 開城女子公立普通學校後援會主催로 新任校長井澤宇三郎訓導 陳瑞林、李學成諸氏의 歡迎會와 多年間同校校務에 努力하다가 今般市內高麗女子館으로 轉任된 田敬駿氏의 惜別會를 望遠洞山亭에서 開하고 同校後援會員一同의 田敬駿氏에게 禮物贈呈及記念撮影이 有한 後 散會하엿다고(開城)

◇寸藏◇

【長城】 數年前부터 逮捕하라든 强盜犯吳秉洙는 所在所에서 長城으로 護送하다가 首席巡査長이 엇지다가 놋처버리고 애꾸진 村사람의 鑑識검사를 하는 통에 사흘동안이나 장을 못잔다고 한다 울다리 나커다 보지팔녀

【平原】 永柔公普敎員 한분은 휘파람불기를 조와하는데 學生의 勅告를 當하고 휘파람을 불다가 敎員을 辭職하고 本社朝刊部長을 運動하시오

【松川】 長淵郡大救面에 잇는 緣故林을 이미 緣故者가 貸付請願外지 한것을 返還시키고 日人에게 貸付하얏다고 面民은 郡、道當局과 面當局外지 非難한다 面長外지 日人에게 同情하얏슬가

俱樂部는 青年會로 改定 鮮明俱樂部總會

市內玉仁洞七四番地에 잇는 鮮明俱樂部에서는 時代進化를 따라 俱樂部를 青年會로 革新하고 아울러 部長制의 役員制度를 執行委員制로 改革하는 同時에 特히 少年部를 增設하리라는데 被選된 執行委員은 如左하다더라

張時龍 宋夢龍 趙始男 趙仲哲 朴鈴晧 李壽吉 權奎善

期米

仁川期米 第二報 五月六日

後場小軟

前場阪地四十二圓二十五錢止와 共히 三十六圓九十一錢에 場을 止한 當市場은 後場에 入하야 阪地初付四十圓十四錢인 十一丁反落을 據하고 卅六圓七十五錢에 場을 始한 後 阪地二節亦十四錢으로 四節부터 二十錢인 二番同事임을 伴하고 二節七十八錢으로 入十錢인 三番同價의 釘着으로 結局假止二十一錢의 報와 相俟하야 六節七十九錢으로 入十錢에 場을 止하니 高價의 差가 僅히 五丁이며 阪仁의 鞘는 三百四十一丁이더라

大阪場況 六日後場

今後場阪地場況은 各地低報와 地場及來客筋의 賣로 四十圓十四錢인 十一錢低로 場을 始하야 二番同事를 示하엿스나 地場賣와 「마바라」筋의 手詰買로 二十錢外지 引한 後 商勢稀薄하야 焦付하더니 結局一錢高인 二十一錢에 大引하엿다고

◇各地止價◇

	六日後止	昨止比較
大阪	四〇、二一	一高
東京	四一、三七	一八高
兵庫	三九、六八	一高
下關	四〇、一七	九高
桑名	四〇、三四	三低
名古屋	四〇、三〇	四低
後夕	四〇、一九	一低
金澤	二九、二九	一低
熊本	四〇、一五	四高
仁川	三六、八〇	同

◇阪仁氣配◇

大阪 三錢低
仁川 三十六圓七十九錢、八十錢

◇各限俵合◇

六日後場 [illegible]

學校費補助에 徹底한差別
일본인학교에는천여원식 조선인학교에는일원이다

안주군(安州郡)내에잇는일본인소학교는삼개소인데 안주(安州)소학교생도가 사십삼명, 신안주(新安州)소학교생도가륙십팔명 신리(新里)소학교생도가십사명 도합일백이십구명이오조선인보통학교는 역시

삼개소로 안주보통학교의 생도일천이백명 립석(立石)보통학교의생도 삼백여명 만성(萬城)보통학교의생도 삼백륙명도합일천팔백륙명으로 일본인소학교생도 총수일백이십구명에비하면 실로 일천륙백칠십칠명이 더만허 근십오배나되는다대수에 잇슴에불구하고 해마다늘어가는조선인생도를

삼개소의 학교로서는도저히 다수용할수업서 보통학교에드러가랴면 어린이들의 좁은가슴을 무한히태우면서 예건과거나보는것처럼 험이들어야겨우들어간다는 비참한현상에 잇슴에도불구하고 당국에서는 다만돈업다는핑계만하고잇스며국고금(國庫金)과디방비(地方費)등의보조는오직일본인

소학교에 만준다는자못 심한차별을감행하야일반의피가뛰게하는바이제금년도의일본인학교와 조선인보통학교에 대한당국의보조금액을표시하면아래와갓다더라

◇日人小學의補助金額

安州 國庫金補助 一、二〇〇圓 地方費補助 九〇〇圓
新安州 國庫金補助 一、二〇〇圓 地方費補助 七五〇圓
新里 國庫金補助 一、〇〇〇圓 地方費補助 二五〇圓

◇朝鮮人普通校의補助金額

安州 國庫金補助 一圓
立石 萬城 地方費補助二圓

進永示威事件
전부무사방면

경남진영각단데(慶南進永各團體)에서는 지난오월일일메이데이에 시위행렬을하다가 경찰에게 몃사람이검속되얏다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여덜사람중에두사람은방면되고남어지사람은 김해(金海)경찰서로 넘기엇든바 일주야를유치장생활을 시키고 이후로부터는 엇더한일이든지미리통지하고실행하라는경찰서장의 두어마듸간당이 잇슨후무사방면 하얏다더라(진영)

內田良平遂起訴
首相暗殺敎唆判明되야 기타흑룡회간부두명기소

가등수상(加藤首相)암살음모사건은계속하야 동경디방 재판소 검사국에서뢰천(瀨川)검사가주임이되야 취됴중이든바 이미구류처분을하얏든 흑룡회수령 내뎐량평(內田良平)의교사(敎唆)사실이판명되야 륙일에필경 살인교사죄로 긔소되는동시에 흑룡회간부디뎐광수(池田廣壽)소뎐호태랑(小畑虎太郞)의량명도 긔소되얏다더라(동경뎐보)

西面公普 位置問題
군수가고집하면 사립으로할작뎡

전남순텬군 서면(全南順天郡西面) 공립보통학교 (公立普通學校)긔성회에서는 긔부금은전부 수입하얏고 예산편성까지 쯧나서 곳 건축에착수하게되는데 순텬군수오석유(吳錫裕)씨는지난 사월 이십구일에 돌연히서면하편인 매산모퉁이에가서 위치를 뎡하얏다는 말이잇슴으로 면민은즉시 면민대회를열고 위원김긔영(金基永)허준(許埈) 정긔천(鄭基千)삼인을선뎡하야면사무소에가서 면민의의견여하와 면의중앙을 버리고편협한 위치를 뎡하는 리유를질문한즉 면장송교현(宋敎顯)는도저히알수도업고원래 면공보위치는 군수가비밀히뎡하는것이라고 책임업슴을주장함으로 질문위원은 다시 군수에게 질문까지 하얏다는데 만일 종시중앙을 버리고권리를주장하면 면민과긔성회의 의견은긔부금을 다시차저서 사립학교를짓기로활동중이라더라(순텬)

慘死學生葬儀
學校葬을하라다가 학생의친부가감정키로

석간과보‖작륙일오후세시경에시내락원동협성학교 (協成學校)운동장에서 그학교생도한봉수(韓鳳洙)(一六)군이 운동장다지는돌을 가지고 놀다가잘못되야 치어참사하얏는바 동교에서는 별안간에 불의의일을 당하얏슴으로 교장이하 일반직원들은 즉시직원회(職員會)를열고 학교에서이러난참사(慘事)임으로학교장(學校葬)을 지내기로 결의하얏든바 그학생의부친되는한유직(韓維鋼)씨는자긔아들의 과실을학교에서 그러케알아줌은 고마우나 자긔집에서갓장하겟다고하얏다는데이에대하야 교장림규(林圭)씨는 매우큰실음을 띄운어조로 말하되 『엇하지안흔 불상사를내이게되얏슴은 누구의 과실이든지 엇잿든 학교교내에서 생긴일이라 엇지 스스로 책임상미안하지안켓슴닛가 즉시 학교장으로 지내라고하얏슴니다마는 그것으로도 엇지사회나일반학부형에게 대할면목이 잇겟슴닛가 다만압흐로 더욱주의하겟스며 이번일에는 진사할길이업슴니다』

永興里幼稚園
布敎所事業으로 장래가유망하다

강원도녕월군 녕월면영흥리 태백산 보덕사(江原道寧越郡寧越面永興里太白山報德寺)에서는 동군 불교포교소(同郡佛敎布敎所)를창립하고그의 사업의제일보로 보덕사불교유치원(報德寺佛敎幼稚園)을창설하야 지난사월이십일일에개원식(開院式)을거행하얏는데 개원한지 일삭이못되야 입학원자가 륙십팔인이나되엿다하며 군내관민유지의 갑흔사랑과 후원으로 장차흥왕하게되리라더라(녕월)

乞人激增
전남순텬에

전남순텬군(全南順天郡)에는련래에우순풍됴(雨順風調)하야농작물에 상당한 수확이잇섯스며더욱히 작년에는 평년작 (平年作)이상의 수확이잇섯슴을불구하고금춘에와서는 엇지된 일인지걸인이 격증되야 밥버가되면수십명의 걸인이떼를 지어밥한술구제하라는 그동의 애걸하는 소리에 밥을노코 먹는다할지도 참아안심할수업다더라(순텬)

組合돈被害로
조합장들규탄협의

재녕우편국(載寧郵便局)소사최형찬(崔亨贊)(二三)은지난사월일일에사리원(沙里院)동척지뎜장(東拓支店長)시야강(矢野康)으로부터 재녕(載寧)군령(郡廳)안에잇는 경우궁보관리조합(景祐宮保管理組合)사무원 최제칠(崔濟七)에게보내는돈륙천구백팔십사원 구십륙전을 차커가지고 도망하엿슴으로 일반조합평의원(組合評議員)들은만흔불평과비난이만든중지난사월이십팔일에평의원회(評議員會)를열고 동력디점장이자조합장까지겸한시야강(矢野康)에게엇지하야조합돈은조합장이보관하는것인데 사무원인최제칠에게보내엇느냐고질문한바씨는그돈은회사수세(會社水稅)로보낸것이라대답하매일반의원들은 그런모호한 대답이 어데잇느냐 무책임한말이 어데잇느냐하고 책망한즉 씨는그러면우편국장(郵便局長)을 걸어 고소하겟다하엿다는데 엇던평의원의말을들은즉속히총회를열고 조합장시야강의 무책임한것을규탄하고큰문뎨를빌오키리라더라(사리원)

廣告부첫다고
로동공우위원인치

함흥로동공우회(咸興勞働共友會)에서는메이데이를 긔념하기위하야 긔념강연회를 개최하고시내 각처에광고를 부첫든바함흥경찰서형사 (咸興警察署刑事)가동우회상무위원으로 잇는홍현옥(洪鉉玉)씨를인치하얏다는데 리유는남의집주인의 승락을엇지아니하고 함부로 광고를벽에부친것은 경찰범 처벌규측에위반하얏슬뿐아니라 그럼강연은 이미금지를 당한일인데그가티광고를 부첫다고 하는것이라더라(함흥)

『面長이統義府員』
두서로헛물켜옥천경찰 무고한리창현은공소해

보은군 마로면젹암리(報恩郡馬老面赤岩里)사는 리창현(李昶鉉)이는 그동리에잇는림야(林野)가닭으로 마로면 면장피교명(皮敎明)이와 전부터 서로 반목하든터인데 작년음력 칠월경에피교명이를 모함할 조치못한생각을품고 대한통의부 경성림시출장소 (大韓統義府京城臨時出張所)라는 명의를빌어가지고 그명의로피교명에게 『보은재무취데위원 (報恩財務取締委員)을 임명한다』는 거짓사령서를 위조하여가지고 그것을 피교명이와 친하게지내는려봉화(呂奉化)의집동뒤에감추어두고또제가가지고잇든뎐환 오십여개를 피교명의 집뒤에내여버리여 마치 피교명이가 대한통의부와 관계잇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노코 옥천(沃川)경찰서에 투서하기를 『피교명이는대한통의부원으로 경성에 잇는리수석(李水石)이와 함께 면사무소(面事務所)와옥천경찰서를 습격할비밀계획이잇다』는 거짓말을하엿든바 그런줄모르든 옥천경찰서는 크게놀래여 별안간 대활동을개시하고 피교명이를 잡어드린다 가택수색을 한다 뎐환을 압수한다하야중대사건이나 잇는줄 알고 소동을 하엿스나 결국 리창현의무고(誣告)인 사실이 발각되여 리창현이는 그동안옥중에서 취됴를밧고 금년사월 이십일에 공주(公州)디방법원 청주(淸州)지텽에서 징역륙개월판결을 밧고경성복심법원에공소하엿다더라

徐面長의非難
교육을무시한다고 학부형의비난비등

전남광양군진월면 (全南光陽郡津月面) 면장서천수(徐千洙)는 순사로재근할때에도 인민을 무시하야수렵총(狩獵銃)으로농민을구타한사실도 인민의 비난이 만터니 순사사직후에 동면면장이되야 또일반의비난이 만흔바 면직원에게 권제를 함으로일반직원은 무한한불평중에 잇다하며더구나 아동교육을 무시보다도반대하야동면선소리(船所里)에잇는학술강습소(學術講習所)는원래 면소유의건물인데 면소유이니 면장이팔어도 관계업다는조건하에서 그건물을 팔어버린고로 동강습소에서 공부하든 백여명학생은 로상에서 방황하며그학부형의 비난이 심하든중다행히동리곽종선(郭鍾善)씨는 적빈무산자이나 면장의 무리함을분개하야 자긔의 소유가옥일동밧게업는것을한편으로옴기고 학생에게 허락하야다시 개학하엿스나 서면장의무리함을 일반이분개한다더라(순텬)

쌍을사가지고도 耕作을할수업다
안동현삼도랑두에잇는 사십여동포의억울한일

안동현삼도랑두(安東縣三道浪頭)에거류하는 농민동포 사십여명은 지난사일에 안동현령사관(領事館)에쇄도하야 무슨 진정서(陳情書)를데출하엿다는데 그내용인즉전긔 삼도랑두에거류하는 동포들은 중국인왕치문(王治文)이란자에게 논사십일경(四十日耕)을사가지고방금경작을 하고자할때에 돌연히중국관헌이와서 이것은 왕가와서로사계약(私契約)을 한것이니너희는 경작지를 못한다하며관병(官兵)까지 출동식히여가지고 동포의 경작을방해함으로여긔에 소작하는 여러동포들은 할수업시 령사관에 진정하야중국관헌의 무리함을 억제하고경작긔(耕作期)가 절박한것을 속히해결하여달라고 진정 하엿다더라(안동현)

精神病고치다고
사람을죽엿다

전주군조촌면 고랑리(全州郡助村面古浪里)에거주하는 박공범(朴公凡)의이남웅래(維來)(二六)는정신에 이상이잇서 매양고민하든바 지난이일 오후팔시경에김데군 백구면백산리 사는박성지(朴成芝)(二八)라는자가와서 병을 고치겟다고 장담한후 환약(丸藥) 몃개를 먹이엿든바 웅래는 약먹은지한시간이 못되야갑작히 죽엇다는데 이보고를들은 전주경찰서 천뎐(川畑)사법주임과 아옥(兒玉) 경찰의는즉시현장에출장하야시톄를해부검사(解剖檢査)한결과보고한사실이 상위가업슴으로 권긔박성지(朴成芝)를 인치한후 방금엄중한취됴를 하는중 이라더라(전주)

學生毆打重傷한 송파공보교장
학부형까지분개

광주군 송파공립보통학교(廣州郡松坡公普校)학생일동은 지난삼십일에봉은사(奉恩寺)로원족을갓다가 도라올때에 훈도리도순(李道淳)씨가학생들에게자유로가기를 허가하엿슴으로 제삼년생윤수안(尹守安)과그외사오명이 압동으로뛰어나가는것을 보고교장십하관태랑(十河貫太郞)씨는 수차불럿스나 속히오지아니하엿다고 학생들을 불러세우고모조리 뺨을 치고 발로찻일이 잇섯다는데 그중 윤수안(二四)이란학생은 십여번이나 뺨을마저 잠시 긔절하엿섯는데 지금까지 귀는여간소리는 잘듯지못하고 귀속이쑤시어 견될수 업슴으로송파동제의원(松坡東濟醫院)에서 아주일간 치료를밧게되엿고 그뿐만아니라 항상학생들을 너무 때린다고 학부형측에서는 매우 분개한다더라(송파)

鎭南浦에 自轉車探勝團
본사진남포지국주최로

본사 진남포(鎭南浦)지국에서는 오는 십일에 진남포를 중심으로한부근 명소(名所)를 자전차(自轉車)로 탐승하기 위하야 탐승단을 조직하는중인데 탐승단에 참가하고저하는 이는 오는팔일까지 본사진남포지국으로 신청하기를 바라며 명소는 다음과 갓더라(진남포)

◇探勝場所 山東葛水源地▲大代面高麗葬▲廣梁灣塩田▲龍岡溫泉▲海雲面粘蟬碑(朝鮮唯一의最古古蹟)▲三和邑▲馬牯里新水源地

학대에못이겨 다라난녀자를 본부가차저와
다리고또고소까지

전주군삼례면송뎡리 (全州郡參禮面松亭里)에본적을둔정운선(鄭雲先)의장녀북실(北實)(二五)은지금으로부터십이년전에진안군진안면신리(鎭安郡鎭安面新里)에사는김광언(金光彦)(二八)에게출가하엿든바그때부터엇전지부부간에 의가조치못하야 이래십여년간의 긴세월을 두고무쌍한반목이 심하엿는데 전긔정북실은 참아견되지못할 남편의학대를피하야 그전부터 매양사모하든삼례면와리(參禮面瓦里)정순용(鄭淳龍)이란 사람과 작년동지달십이일밤에 익산군 팔봉면화뎐동 (益山郡八峰面花田洞)이라는곳으로도망하여살다가 견데기어려운 빈한한생활에 부득이 십여일전에 전주대화뎡이정목팔십일번디 (全州大和町二八一)에셋집을엇고떡장사를하든중 지난사일오후시경에 이르러뜻밧게본부김광언이가차저와서 정순용과북실량인을 전주서(全州署)에고발하엿슴으로방금취됴중이라더라(전주)

維新會場의殺風景
三百餘農民이殺到하야 구간부의편이되야가지고 회문부를강탈까지하얏다

함흥유신회혁신(咸興維新會革新)에대하야 구간부이든 몃몃사람들은 혁신파를 반대하야음모와 중상을 계속하야오다함은 이미루차 보도한바어니와 지나간사일동회림시총회(臨時總會)를향교대성전(鄕校大成殿)안에서 개최하얏는데 그구간부측에서는 십리내지백리되는 각면으로부터 이박분경작시켜 농민삼백여명을

거나리고 와서무슨큰폭동이나 이르킬듯한 태도로서이구석저구석에서 둘식셋식 수근수근하더니개회벽두에림시의장선뎡문데가나자마자구간부측에서문데를이르키기시작하매삼백여군중은이에부화뢰동하야떠드러내는바람에 회장은 무질서불규측하야 도뎌히의사를 진행할수업슴으로 위원측에서 극력으로 회장을정돈하려하는지음에

별안간에 반대측인면장한장숙(面長韓章淑)위수룡(魏秀龍)두사람이 달려드러서상부위원 김순영(金舜榮)씨가 가지고잇는 회의문부를 강탈하려고함으로 김씨는 이에대항하엿스나 다수인사람이 덤비는바람에문부는 강탈을당하얏고 회장은 따라서 수라장으로 화하얏슴으로 위원측과 청년계급에서는

크게분개 하야비록소수이지마는결코 다수인그들에게 뒤지지아니할자신을 가지고 결국뎍으로 징치하려고 이에큰 싸움이 열리게되는바에 일부위원과 기타유지의중재로 간신히 완화하게되얏스나 최초에 한문부부터 차저내지안흐면 아니되리라하야 최초에착수한 것이 긔면장을대하야피해

위원으로 부터문부반환[illegible]

선언한뒤 [illegible] 고문부수색의책임은피해위원에게 맛길수가업고자긔네끼리부터 이업는반동분자인자칭신간부에게그책임을 부담시키려고 주장을세우려 여러가지로 반대하다가목뎍을 이루지 못하얏고

원군으로 부터모혀오게된삼백여군중의 거조에 대하야는도리혀 이것을 미안히녁인셈아니라 십분량해를 구하기위하야위원 김순영씨로부터 재래의회의재산 상황을설명하야 일일히구간부의 흑막을 드집어해부하얏고다시김병돈(金炳敦)씨로부터 과거와 장래에대한 설명으로써 몃몃야심가의죄상을폭발한후

청년계급 의몃몃유지로부터 회의장래에대한 열렬한설명이 잇슨후 [illegible] 가엇더한것을 깨닷는동시에그들야심가의 비행을알게되야 후회와감복이 교집하는중에 동여섯시사십분에 폐회 하얏다더라(함흥)

私嫌잇는日人이 面長을中傷
면민들은분개한다

아산군배방면장 (牙山郡排芳面長)리귀영(李貴○)씨는 십여년전부터 동면장이되이후 아모허물업시 지나오든중 동면갈매리(葛梅里)입교정길(入交貞吉)이라는 일본인이권긔면장에대한 십여됴의 비행을들어각관계당국에 면장을 갈어달라는 원서를 데출하엿슴으로 동면민들은 권긔일본인의 행위를분개하야 [illegible] 본인은 자긔가배바면 소유의산야를 대부하야달라하엿스나 면장은 그일인에게 대부되면 일반면민에게 막대한 손해일뿐아니라 입자가 가엿슴으로 못하겟다 불유하엿스며 국유디 불하할때에도자긔에게 딸라하는것을 일반작인들을위하야 딸지못하엿는데 [illegible] 각관계당국에서 됴사한바에도면장의 허물이업는것으로 판명되얏다더라(아산)

……會收支
기타잔무처리사항

조선긔자대회(朝鮮記者大會)준비회에서는 지난사월[illegible]을하엿다함은 [illegible]보도한바어니와당일결의와 수지계산(收支計算)은다음과갓더라

◇決議

一、地方에서大會參加申請[illegible]을보내고出席지아니하야參加金을納入치아니한이는五月二十日內로京城에到着되도록參加金을納入케하야 이手續을마친이에게限하야名簿를作成하고會員에게는會錄、名簿及大會紀念메달을無料送呈할것

二、大會殘務는代表委員李鍾麟外委員三人을選定하야處理를一任할것、殘務處理委員李乙、李奭、李鍾麟、(但殘務處理委員入會事務所는京城府堅志洞入入番地開闢社內에둘것)

三、大會備品은全部無名會에保管케할것

收入之部

一、參加金 一金四百四十四圓也

二、贊助金 一金二千[illegible]百二十[illegible]圓也 內譯 ▲銀行集會所千圓 ▲朝鮮日報社二百圓 ▲玄俊鎬 吳熙源 [illegible] 各百圓 ▲李王職 金性洙 申錫雨 崔鎰益 [illegible] 閔大植 白寅基 開闢社 東亞日報 時代日報 每日申報 各五十圓 ▲尹致昊 [illegible] 미가도商會 ▲[illegible]十圓 ▲車部各二十圓

三、賣店收入 一金一百五十圓也 內譯 ▲食道園 [illegible]

以上[illegible]

▲[illegible]酒入百本 [illegible]會社 ▲麥酒一函 大日本麥酒會社 ▲朴家粉八百匣 朴承稷商店 ▲天一藥神丸千包 天一藥房 ▲懇親會時茶菓 同 ▲大會場裝飾 松高實業場 ▲祝賀塔一個所 友助紫時計舖 ▲同 大日本麥酒會社 ▲同 鈴木商店京城支店

[illegible]之部

一金一百九十二圓十七錢也 (準備委員會費)
一金五十五圓五十六錢也 備品代
一金三百七十圓七十錢也 印刷費
一金八十二圓七十三錢也 通信費
一金七百四圓七十六錢也 雜費
一金一千五百十五圓三十錢也 懇親會費
一金八十四圓二十錢也 人件費
一金二十五圓也 殘務處理費
計三千三十圓四十二錢
差引不足額二百十六圓四十二錢也

殺人犯鹽稅局員
중국관헌에게로넘기엇다

압강텰교(鴨江鐵橋)아래서중국 염세국원(鹽稅局員)의방총폭행으로인하야 동포두명이 참살되엿다함은 이미본지에 보도한바어니와 안동경찰서에서는 염세국원한명을 즉시데포하야 사실을엄중히 됴사한후 염세국원은 지난사일에 중국관헌에게로 인도하고 취됴한일건서류는 령사관으로 보내엿슴으로 령사관에서는즉시중국관령에 엄중한교섭을하리라더라(안동현)

有妻娶妻하고 나종에는팔고자

김해군 대저면 맥도리 (金海郡大渚面麥島里)최성준 (崔聖俊)(二四)은금년음력정월칠일에부산부보수뎡(釜山府寶水町)윤명도(尹明道)(二七)에게 처자가업다고속이고 결혼하야이래 동거중이든바 지난음력이월하순경에 문득본처가 나타나서 그날부터가뎡에는 불평의풍파가 그칠사이가업더니 마츰내최성준은 윤명도를 유인하야부근 료리집에다 일백륙십원에 팔고자 비밀히약속한바를 윤명도가미리 짐작하고이에 반항하얏든바 최성준은 종시 협박도하며구타도 함으로 윤명도는 남편의무도한 수단과신세의 장래를생각하야 분하고압흠을 참지못하야 경찰관주재소에 고발하얏슴으로 권긔최성준을인치취됴중이라더라(대저)

不良少年取締
江華警察署에서

지난오일하오칠시경에강화경찰서에서는 비상소집을하야가지고 이십내외에 청년들이 료리집이나 기생집에서술을먹고 불량한짓을하는 일단을 권부검속하야 방금취조하는중이라더라(강화)

開城市內에 中毒者激增
일반은경찰을비난

개성시내에는근일에이르러 모루히네중독자와밀매자가나날이 늘어서 지금은 대략이백명이상에는 혹유산자도잇스나 대개는 무산자로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풍문이구걸하야 침을맛는자가 다수인데 일반은 중독자인을알고모릅을주지안는다는바 그자들은 절도적을하게되야 근일시내에는

母女가逃走
다릴사위만남겨두고

룡천군양하면오송동(龍川郡楊下面五松洞) 일백칠십이번디김영록(金永祿)(二六)의장모장원단(張元端)(四〇)은지난사월십팔일에 그딸림병곤(林炳坤)(一八)과손자창호(昌浩)(三)를다리고 도주하얏다는데이제그자세한말을듯건대전긔장씨가어린딸하나를남겨가지고살아오다가십년전에권긔영록을다릴사위로다리고지나오든중 그사위가 술만먹고다니며 항상유감으로 역이든바지난삼월이십륙일 아츰에 사위가어데갓다오겟다고 두루막이를 달라함애 장모는 이에불응하고도로혀하는말이 밤낫이러케 도라다니기만하면 가사는 엇더케되겟느냐하매 사위는 장모의말에 반항하야 일시언쟁을 일으키엿섯스며 그후에도 몃번그러한풍파가잇든쯧테 그와가티 도망한바 김영록은 수색원을경찰서에 데출하얏다더라(양시)

面所가賭博場
면의비난비등

황해도 금천군외류면사무소(黃海道金川郡外柳面事務所)의면리원(面吏員)들이작년구월부터지금까지장구한시일을두고숙직실(宿直室)에서도박(賭博)으로 일과를 하다십히하야 오다가마츰내 지난사월분에 발각되야당디주재소에서 인치 취됴한후설유방면하얏는데 이에일반 면민들은 분개하야 그와가티부정한 리원들을 그대로 둔다는것은그면의 치욕이될뿐아니라 막중한면비로 도박군을 양성함은 도저히유서할수업는일인즉 회계원과맛서긔일동을 퇴직시키기 전에는 결대로호세(戶稅)를 줄수업다고호세불납동맹(戶稅不納同盟)을하얏다더라(안협)

龍川郡에도 아비따린자식
아비가첩늘어더가지고 버리지안는다고따렷다

평북룡천군내중면모고동 (平北龍川郡內中面慕古洞)리범락(李範洛)이라는자는 지난사일에 그의친부를 몹시 따린일이잇다는데 그 내용을들으면 몃해전에그부친이 첩을어더가지고 버리지안는다고 그와가티 아비를 따리는동시에 서모되는김씨(金氏)까지따린바 그의아비는 다리가부엇고 김씨는 입으로피까지토하야 방금남시의원(南市醫院)에 입원치료중이라더라(용천)

假强盜로騷動
무고하고잡힌자

포천군서면 신읍리(抱川郡西面新邑里)백구십삼번디류사문(柳士文)(二三)은 지난이일 동대문밧(東大門外)모정미소 (某精米所)에서 쌀판돈일백십삼원을바더가지고 사일오후 열두시반경에양주군 시둔면유원리(柴屯面楡院里) 경원선텰도(京元線鐵道)변을지나는중 숩사이에서 의강도가 나타나 몽둥이로때리면서 돈을내라고 위협함으로돈을내어주고 겨우도망하야왓다고포천 경찰서에고발함으로 경찰에서는 즉시경계망을 느리고 각방면으로 수색을 하엿스나범인의 형적은 묘연함을 알게되야 피해자의 말가운데 의심할뎜이만흠으로 도난을 당한근방을수색한결과 돈을 모래속에파뭇고거짓말한것이발각되야포천경찰서에서는 그자를 인치취됴중이라더라

德隅普生盟休
사학년생전부가 교장에대한불평으로

황주군구락면 덕우시공립 보통학교 (黃州郡龜洛面德隅市公立普通學校)사학년생전부는지난일일부터 동맹휴학을 하얏다는데이에 대하야학교 당국자와학부형측의 여러번교섭이 잇섯스나 아즉 해결될 희망이 업는데 이제그동맹한 학생들의말을 듯건대 동교교장으로잇는송원(松原)씨에 대한불평이라는데 학생들이 혹물을것이잇서서 물으면 잘가르켜주지도안흐며 조금만실수 하는일이잇서도욕서안코 어린학생들을 함부로구타를 한다는등 여러가지불평이라더라(황주)

勞農委員檢擧
소작쟁의사건인가

태인로농회총무위원 (泰仁勞農會總務委員)오광(吳光)씨와 상무위원김학규(金學奎)씨는지난이일에돌연히정읍경찰서에검거되얏다는데 내용은 비밀에부치나경성민대식(閔大植)씨의사음 조뎡현(趙楨顯)과사이에소작쟁의가잇섯든바그사건의관련인듯하다더라(태인)

正租六百石
돈안주고사서 돈밧고팔어소비하고 경찰서에구인되얏다

경남선례산역전 (京南線禮山驛前)곡물무역상하는 박원삼(朴元三)(四〇)은지난삼일에 당디경찰서(警察署)에 구인되야 방금취됴를 밧는중이라는데 아즉자세한내용은 알수업스나 탐문한바에의하면 박원삼(朴元三)은 지난륙일에 동군덕산면 옥계리(同郡德山面玉溪里)에사는백충긔(白忠基)와 동군광시면(光時面)신양면(新陽面)봉산면(鳳山面) 아산군선장면 (牙山郡仙掌面)에잇는정조륙백여석을 매수하기로하야 먼저계약금으로 일천오백원을 지불하고 남어지돈은근수를 계산하야 당석에서지불하겟다한후 권과백충긔(白忠基)의대리인 리모(代理人李某)와가티 사흘동안을다니며 근수를계산한후 그날이마침 토요일(土曜日)임을 긔회를삼어 긔리모(李某)에게 은행에예금을차저야 하겟는데 시간이지낫스니명칠을 참으라하고 그정조(正租)를 다른사람에게 즉시방매(放賣)하야소비한사실이라는데 금액은 칠천여원 이나된다더라(례산)

老總角兄弟가 隣家處女中傷
량가의파혼결과

안악군 안도면소평리 리창오의장녀 춘봉(安岳郡安道面小平里李昌五女春鳳)(一七)은 수월전에그동리에사는전사준(全士俊)의중매로 동군동면어운리 전사필의 장남래준(同郡同面於雲里全士泌長男來俊)(二一)이와 약혼하얏는데 요사이 전사필은 엇던자와 이간하는편지를보고 파혼할의사가 잇다는말을 권긔당사자인 춘봉이가 듯고 너무도사실이외의입에 놀라서식음을권폐하고누엇다는데 탐문에 의하면한동리에사는 **장병현의** 이남호균(張炳鉉二男昊均)(二六)이란자의 소위로 판명되얏다는데 본래이자들의형데는 가세가 빈한한데더옥히 행세가조치못하야 동리사람들도피차접어를잘하지안는터이라는데 작년가을어느때에 춘봉이가모친의 심부름으로 골감을사러가다가도중에서돈십권을일코찻는중에 호균이란자가 돈십권을 줌으로 처음에는 외간남자에게 리유업시돈을 바들필요가 업다고재삼거절하엿스나결국모친의책망을두려워바든일이잇다 그리고그얼마후에

巡査에게暴行
두명은잡혀취됴중

평남덕천군 덕천면무릉리(平南德川郡德川面武陵里) 배창국(裵昌國)강진국(姜鎭國)두명은 방금 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로 경찰에게잡혀취됴중인바 권긔두명은 지난사월이십일일 덕천경찰서에서 순사두명이 사긔범인이 강진국의집에잠복한것을 탐지하고검사(檢事)의구인장(拘引狀)을 집행키위하야 그집으로간즉 권긔두명은구인장 집행을 방해할뿐만아니라 두순사에게 대하야폭행을한사실이라더라(평양)

술먹다가 싸오고自殺
경찰에서 원인을됴사하는중

시외고양군 한지면상왕십리(高陽郡漢芝面上往十里) 이백칠십삼번디에살며시내남대문장에서 푸성귀장사를하는 홍정표(洪正杓)(三三)는사일밤 열한시반경부터왕십리 내외주뎜김창현(金昌鉉)의집에서 술을먹든중역시 그집건넌방에와서술을먹든한지면서긔(面書記)김재규(金在奎)와 뎐종인(田鍾仁)등 두사람과 말다툼이생기어 한참싸호다가 오는 즉시목을매어 자살하고마럿다는바 그는가산도유여한터로 아모자살할원인이 업슴으로보면 서긔두명과 싸호것이 원인인듯 함으로방금 그집안은 물론경찰에서도원인을 엄중히 됴사중이라더라

正直한學生
길에서백원을어더 경찰서에갓다주어

충남례산군읍내 (忠南禮山郡邑內)공립보통학교생도 리창영(李昌永)(一五) 김득춘(金得春)(一四)은 지난사일에 동군읍내로 통행하다가 현금일백원을 길에서어덧는데 즉시당디 경찰서에 계출하야 주인을차저 주라한바 일반은 그학생들의 정직함을칭찬한다더라(례산)

당목수건

에수를노아서 [illegible] 자들의 소행이불량함을 아는터이라 즉긔준것이 아니요간접으로사람을 식혀주엇다고 하는바이자들은 이것을 긔회로전긔와가티사실도업는 권연무근한 간편지를 한것이라고 하며그들형데는 우금미혼자로서 련전에도이와가튼 행동으로 파혼을식힌일이잇다더라(원산)

書籍專門窃盜
종로서에잡히어

시내종로서에서는 절도 전과사범으로 일뎡한주소가 업는신긔호(申基浩)(二三)라는 자를데포하야방금 취됴중인데 이자는 금년삼월이후로 계속하야시내 큰직큰직한각책사(書籍店)를 전문으로 이미 근천여원에갓가운 갑진서적을 수백권이나훔처다가 팔아먹엇다는바 이제이자의 책을훔처내이는 수단을들은즉 금년에 처음시골로부터 올라온 학생과가티학교에입학하야소용되는 교과서를 사려온 것가티한후 주인의분주한 틈을 타서 훔처내이는것이라는데 동양서원(東洋書院) 창문사(彰文社)암송당(巖松堂)등이 유수한피해자라더라

蛤洞에小火
원인은방금됴사중

륙일밤새로세시오분경에서대문밧합동(蛤洞)칠십륙번디약종상김인배(金仁培)(三○)의집에서발화하야 약십분후에 진화되엿는데 손해는 오원가량이고 원인은 됴사중이라더라

立石에火災

지난사일오후한시쯤되야 안주군 립석면룡운리 (平南安州郡立石面龍雲里)칠십삼번디 최화준(崔化俊)의집에서 돌연히 불이일어나화광이충텬하엿는데 립석소방조와 마츰장날이라 장꾼여러사람의 진력으로 약한시쯤되야진화되엿는데 원인은 불뜽때이다가 실수되여나무에 불이부튼것이라하며 초가삼간이 전소되엿는데 손해는 자세히알수업스나약 삼백원가량이라더라(안주)

義城兩處火災

경북의성읍내(義城邑內)에서는지난칠일밤열한시쯤되며 당디부호 박괴원(朴璞元)씨의장술가비가리에서 불이나서 일곱오백여단의 만흔것이 전소되엿스며그날밤 이불이진화된 한시간을뒤에 또부호 오병수(吳炳洙)씨의 집아래채에서 불이나서 소실되엿는데 당디소방대가 출동하엿스나 한재로운불을금하업서서 아모소용이업섯스며 발화한 원인은 자세히알수업다하며손해는약오륙백원에달한다더라(의성)

第二回西關自轉車競技大會

◇時日 五月三十、三十一日兩日間
◇場所 黃海道載寧靑年會運動場
◇申請場所 載寧輪業組合事務所
◇參加金 每人二圓式
◇主催 載寧輪業組合
◇後援 載寧靑年會、每日申報載寧支局、東亞日報載寧支局、朝鮮日報載寧支局

沈村脚戲大會

침촌(沈村)에서는 개시(開市)오주년을긔념키위하야 오월삼일을 긔회로 서선각희대회(西鮮脚戲大會)를개최하고오월륙일부터 구일까지 사일동안이나 계속하야대성황을 이루엇는데 일등은황주여천(黃州麗前)김학영(金學泳)(二二)군 이라더라(황주)

市井雜事

◇지갑을훔친자 파주군(坡州郡)에원적을두고 일뎡한 주소가 업시다니는 리로마(李老馬)(二三)는 오일오전열시경에 경성우편국(京城郵便局)압헤서 욱뎡일뎡목(旭町一丁目)칠십구번디 택지부순(澤地富?)의 주머니에든 지갑을솔여내어 가지고 다라나다가 본뎡서원에게 데포되야취됴를 밧는중 이라고

饑饉義金
구제회에온바

▲沙里院學友會十八圓▲鳳山郡[illegible]女子靑年會十圓▲漣川郡積城面[illegible]里內安興燮外諸氏十四圓七十一錢▲在京順友會十圓(第三回)▲日本樺太東浦岸元泊郡東知取村朝鮮人親睦救濟所二回同情金三十九圓五十錢은送한바그氏名及金額은如下함 正玉、金昌鉉各五圓 朴文模三圓 朱致元、金斗永、尖祭元各二圓 李元培、康泰白、宋文善、趙文湛、崔宗順、崔景禎、徐秀海、吳祥化、朴官淑、魯成學、楊斗俊各一圓式

累計一四、二九〇、三八五圓

◇正誤=本紙一六九四號朝刊第二面本欄中泗川有志同情은邑西有志의誤이오泗川青年會二十圓은泗南青年會의誤이기 正誤함

휘파람

▲청양군에서는 군텽을 새로건축하고 천여원의경비로 락성식을하는데 잘으로광작하얏다. 광내 불더를태고 기생불러가무보고 무당불러『별신굿』까지하야 질탕하게 놀앗다▲그런데 이락성식 바람에가진희비극이 다잇섯다 굿구경간다고 도망난녀자가 잇서 홀아비된사람 술잔바람에 싸호다가양복을찟고우는사람、기생을 하로밤 모시지못하야 섭섭한놈、얼골못생긴기생하나는 나그네몸으로 독수공방이 설어서 깁흔밤중에 길에서 대성통곡、엇젯든핑장하고풍성풍성하얏다▲그러나 그반면에는、배가곱하서세상을원망하는 긔근민이 잇섯다 량심과 정신이잇는 사람들이야 엇지절거워할일이랴